



# 프로폴리스의 위력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 이어서-

## 5) 3년이 경과한 것이 좋다.

이것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필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프로폴리스를 주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한국양봉협회 김재길 검사실장이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로는 “프로폴리스를 임상용으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주었더니 학생들이 가는데 절반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더 임상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한 제품을 개발시키는 것이 한국 양봉협회가 할 큰 과제라고 하였다. 외국에서 발표된 비증있는 논문들을 많이 번역하여 두었고,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기까지는 몇가지 보완할 것이 있어서 미뤄진 상태라고 했다. 한국 양봉협회에서도 이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다.

이야기가 조금 빛나갔지만, 이러한 힌트를 얻게 된 것은 토란 뜸질고약에서 얻었다. 자연요법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요통에 토란으로 만든 고약을 사용한다. 일년 이내의 토란을 갖고 사용하였을 때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일년이 경과한 묵은 것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러한 현상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원리를 적용시켜 3년이 경과한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극소화 시킬 수 있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단백질 성분을 갖고 있는 효소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효소물질을 파괴시키기 위해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열을 가하였을 때는 특이한 성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효소의 활성은 떨어진다. 필자의 짧은 지식이지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0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해도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9월호에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논해 두었지만, 프로폴리스의 효력은 위력적이다. 이것은 마치 옥과 같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을 더욱 귀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먼저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용할 때 귀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남에게 전할 때는 의학에 대한 지식도 다소 갖추어야 한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용해 때 주정을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메틸 알콜의 사용으로

일어났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마치 약사가 독극물을 모르고 환자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92년 11월호 「양봉계」에 투고되었던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 4. 자국산보다 브라질산이 좋다고 하는 일본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프로폴리스는 1년 내내 모아 보았자 한 통에서 100~150g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이다. 그러나 남미쪽에는 고온 다습하고,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무의 진액 분비가 많다. 우리 나라에 비하여 20~30℃가 되었을 때 벌들이 프로폴리스를 생산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4개월이 지나지 않지만, 남미쪽에서는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 유카리 나무에서는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세계 양봉인들 중에서 지식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남미라고 여긴다. 남미에서 양봉기관의 임원들은 일본 2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민 정책에 의해 수 십년 전에 양봉 이민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초창기에 이민가는 사람들은 전부가 똑똑한 사람들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주축이 되어 80년 초에 정부 지부장으로 있었던 김영식씨 등 10가정이 떠났지만, 그들 역시 똑똑하고 유능한 양봉인이었다.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남미쪽 양봉인들이었다. 남미에서 대량 생산되는 프로폴리스를 세계적 상품을 만드는 데는 자본과 마케팅 기술이 필요했다. 그들은 생산과 제조 기술은 갖고 있어도 세계적 상품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다.

무엇무엇이 인체에 좋다고 내세울 때는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저명한 학자를 내세워 마스크를 타게 만든다. 마스크를 몇 번 타면 그 학자의 말은 곧 불변의 학설이 되어 버린다.

“일본에 있는 벌들은 약하지만, 남미쪽에 있는 벌들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벌이 갖고 온 프로폴리스가 더 좋다”고 하자 그것이 곧 학설이 되어버렸다. 건강 칼럼이나 쓰고, 건강강연이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앵무새 같이 전하다 보니 일본책 전부가 일본산을 효력이 없고, 브라질산이라야 효력이 있다고 하니 국내(한국) 삼류학자들도 그것을 본따 국내산은 효력이 없고, 브라질산이 좋다고

하게 되었다. 우리 상술을 일본이 배워 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로폴리스보다 몇 년 앞서 꽃가루 껍질 사건이 있었다.

“꽃가루 껍질에는 알레르기 독소물질이 있어서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전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학설이 꽃가루의 입자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벗길 수가 없다. 약물 처리로 벗긴다고 하면 약으로 인한 독은 더욱 클 것이다.

꽃가루의 효력은 풍매화 꽃가루보다는 충매화 꽃가루가 낫고, 나무에 비하여 꽃수술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꽃수술의 꽃가루가 더 효과가 있다.

나무에서 분비해 내린 진액은 1년 초(草)에서 분비한 진액보다 효과가 더 높다. 그리고 다량으로 박멸시킬 때는 질보다는 양이고, 소량을 갖고 박멸시킬 때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강한 벌이 갖고 온 브라질산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어거지다. 조기 과정에서는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어도 식탁에 옮기는 과정에 음식 맛이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효력이 달라진다고 하니... 학설 가운데서도 너무나 유치한 학설이지만 이것을 믿고 신봉하는 자들이 많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필자의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24개월 분을 30만원까지 주고 사 온 것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필자의 말을 듣고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국산이나 일본산보다 브라질산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수년전 한국에 있었던 꽃가루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 5. 프로폴리스와 질환

### 1. 프로폴리스의 사용범위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다보면 사용범위가 넓은데 먼저 놀란다. 위장병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사람은 위장병에는 프로폴리스가 제일이라한다. 암에 사용한 사람은 암에만, 축농증에는 축농증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병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용범위도 넓지만, 앞으로 연구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프로폴리스가 좋다해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2~3일 간은 소량으로 사용하다가 높이는 것이 좋다. 다량으로 사용한다 해서 항생제 계통의 설파제나 감기약 계통의 피린제에서 올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도 없다. 즉 입안이 마르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없다. 이러한 증세가 온다는 것은 간에 부담을 준다는 신호다. 그러나 몸이 나른하면서 잠이 오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 가운데

는 가슴이 떨 정도의 가벼운 증세는 올 수 있다. 염증이 있거나 약한 신체 부위에서는 더 아픈 통증도 오게 된다. 국내산 가운데 옷나무 진액이 들어간 프로폴리스에서는 약한 옷의 알레르기 반응도 올 수 있다.

필자가 사용한 12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소화기 계통의 위장병이나 혈액관계의 질환에는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효능이 밝혀진 질병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화기계 질환  
위염, 대장염(출혈시에는 신중을 기할 것), 대장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담석증,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 호흡기계 질환  
감기, 폐렴, 기관지 천식, 기관지 암, 결핵(효력이 다소 약함)
- 내분비와 대사성 질환  
당뇨병, 갑상선, 통풍
- 신경성 질환  
뇌졸중(1개월 지난 뒤에 복용할 것), 안면 신경마비
- 혈액 질환  
철 결핍성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 장티푸스
-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식물성 식중독, 동물성 식중독, 만성 설사
- 부인과  
월경 불순, 생리통, 난소의 종양, 유산, 불임 등
- 신경 및 골·관절  
신경통, 견비통, 관절통, 류마티스 관절염, 좌골 신경통, 목디스크
- 비뇨기과 질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 이비인후과 질환  
편도선염, 귀울림, 비염, 축농증, 인후염
- 정신과 질환  
불안증, 우울증, 수면장애, 정신분열증(초기에는 효과 있음)
- 피부질환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여드름, 기미

여드름이나 기미에 먹어서도 효과가 있지만, 직접 피부에 침투 시켰을 때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프로폴리스가 치유과정에서 오는 호전반응과 발병요인



## 프로폴리스가 치유과정에서 어느 항저방유기 방법이야

신체부위	프로폴리스가 적용되는 질환	질병부위	명칭반응 명현반응은 1~2주 사이에 오고, 늦은 사람은 1~2개월에도 온다.	병이 오게 된 원인
頭 部	뇌신경의 피로 스트레스 만성두통 뇌졸양	頭頂部 側頭部 後頭部 前頭部	머리가 조이는 듯한 통증, 머리습진, 일시적 탈모 수시 두통 현기증, 고요할 때 귀울림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다 중압감, 어드름, 두통, 식은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탕 및 방부제가 든 음료를 과잉음용 시</li> <li>• 포화지방산 및 동물성 튀김을 많이 섭취</li> <li>• 화학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을 과잉섭취</li> <li>• 병치료 시 약의 부작용이 축적되었을 때</li> <li>• 과로, 수면부족, 자율신경계의 피로</li> </ul>
顔 面	눈의 피로 기타 눈 질환 자율신경 실조 축농증, 비염, 중이염	라 및 눈 밑 코 입 귀 얼굴 피부	눈물이 난다. 눈의 가려움, 충혈, 눈곱 대량배출 누린 콧물, 코막힘, 일시적 냄새를 못맡는다 구내염, 입술의 건조, 입술 부름 귀울림, 귀밑 습진, 부종, 가려움 땀띠모양의 빨간 습진, 부종, 가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극성이 강한 식품의 과잉섭취</li> <li>• 커피계통 식품의 과잉섭취</li> <li>• 백설탕이 많이 든 과자와 정백식</li> <li>• 새우, 오징어, 낙지 등 어패류의 과잉섭취</li> <li>• 스트레스, 과다흡연, 기타 요인</li> </ul>
呼 吸	천식, 결핵 편도선염, 폐기종 감기 폐암 치아노제, 인두통	頭 기관지 폐	가래의 대량배출, 가벼운 기침, 목구멍 통증 가벼운 기침, 탁해진 음성, 가래배출 감기증세가 약 1개월 전후, 늑간에 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교감신경의 긴장이 근본원인</li> <li>• 포식, 미식경향, 아이스크림, 커피, 유지방 계통 과잉섭취</li> <li>• 식원병질환, 지나친 근심걱정, 불면 흡연과잉</li> </ul>

消 化	치근염, 충치통 치농루, 식도암 위염, 위궤양 위암, 폴립 스트레스성 위염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	齒 혀 식도  위 소장 대장	이가 들린다. 잇몸출혈, 부음, 통증 1주일 전후로 문드러지고 부음, 찌르는 통증 목구멍에 걸린것 같은 압박감, 불쾌감  자극적인 위통, 명치에 뭉친것 같은 감각. 배가 끓는다 비정상적인 방귀, 헛배가 부르다 청자가 크게 박동함. 일시적인 변비, 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계통의 만성적인 遞行的 경향</li> <li>• 과식 과음, 구운 생선의 과식</li> <li>•五味(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짠맛), 과잉섭취</li> <li>• 약의 부작용, 불규칙적인 식사</li> <li>• 변비, 아제부족</li> <li>• 입안이 불결할 때, 가공식품의 선호, 편식</li> </ul>
내 장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간암 당뇨병, 담석증	간장	급속히 피로가 없어졌다가 무력감이 나타난다. 잠시 지속되다 좋아진다. 전신에 붉은 반점 가려움, 등뒤에 통증 통증(만성일 때 일시 통증이 강하다.) 다량의 발한, 우측하단 복통 발바닥 검질이 벗겨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 과식에 따른 내장부담과 피로</li> <li>• 알콜음료의 과잉과 간의 피로를 가져다주는 일상생활</li> <li>• 바이러스성 질환</li> <li>• 장기간에 걸쳐 화학조미료, 식품첨가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선호할 때</li> <li>• 감미료, 커피, 청량음료의 과잉섭취</li> <li>• 화공약품, 장기복용에 의한 부작용</li> </ul>
		췌장	가려움, 어드름, 습진, 전에 있었던 병중상이 나타났다 사라짐. 일시적 혈당치 상승. 속변배출, 묽은대변, 일시적 변비 통증(만성시 일시적 통증이 강하다.) 다량의 발한, 우측 하단 복통 발바닥 검질이 벗겨진다	

신 경	스트레스, 자율신경 실조증, 갑상선 신경과민, 히스테리 우울증 갱년기 장애	자율 운동 회 회추	일시적인 운동장애, 오한, 불면 잠을 자도 더 자고 싶은 증상, 두통, 미열 고열, 공연한 불안감, 집중력 감퇴 조울증, 매스꺼움, 생리불순 어깨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식이 장기화 되었을 때(그중에서도 화학조미료가 첨가된 식품을 과잉섭취)</li> <li>• 정백식을 상용화 하였을때 (흰쌀밥, 흰설탕, 조미료)</li> <li>• 두통예방으로 화학약품의 남용</li> <li>• 만성적 과로에 의한 일상생활</li> <li>• 가정내 불화</li> </ul>
부 인 병	자궁근종, 자궁내막염, 생리불순, 생리통, 방광염, 자궁염증, 암	생리 생식	하복부통 일시적 불순 또는 멎음 방광염(과거에 아팠던 분은 2~3일간 나타남) 가려움, 약혈 대량배설, 불안감, 불면, 요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성 식품(肉, 卵, 치즈)의 과잉섭취</li> <li>• 특히 자궁근종은 어패류와 소금이 다량 함유된 과잉섭취</li> <li>• 합성 식품과 청량음료, 다량섭취</li> <li>• 향이나 자극이 강한 음료, 감자 과잉섭취</li> <li>• 불결한 생활, 화학의약품의 남용</li> <li>• 정기간 동안 월경불순을 방지</li> </ul>
	불임증	불임증도 꽃가루와 프로폴리스를 같이 복용하면 임신도 가능하다.		
장	간장, 신장질환 대장, 치질환  만성변비	腎 丸 홍문(紅文) 땀(汁) 호흡(息)	일주일 전후 빈뇨, 농도집은 오줌, 요통 일시적 출혈, 부음, 치유직전의 가려움, 설사, 식은땀, 지방성이 함유된 땀, 진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부제 함유의 식품, 외국산과 과일, 합성 식품 인스턴트가공식품, 코코아, 라드제 식품, 과식, 과음</li> <li>• 스트레스</li> </ul>